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예결위 위원장, 부위원장 재선임

한동진 위원장, 유인에 부위원장 선출해 예산안 재심의 및 상정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은 지난 16일 한동진 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인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한 중책을 맡게 됐다. 예결위는 지난 18일까지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자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당초 기정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했는데 이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437억이 증가된 규모로, 강북구에서 제출한 2015년

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997억원, 특별회계 103억원으로 총 4,100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1.93%가 증액된 금액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100억 전체예산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주민수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의결 처리하며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될 예정이다.

한편, 강선경의원의 추천으로 선출된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막중한 자리에 선임이 되어 무엇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지난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있었던 일을 거울삼아 집행부와 타협해서 무사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어 박문수 의원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인에 의원은 "원칙을 기본으로 심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북구민의 살림을 꼼꼼히 살펴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높게 구민의 편에서 서서 위원장님을 도와 송구스러운 마음을 구민의 발전에 힘을 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잘 타협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다"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강북신문 5면

한동진 위원장·유인에 부위원장 선출

강북구의회 예결특위,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합심의 펼쳐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한동진 위원장과 유인에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18일까지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자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펼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당초 기정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했는데 이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437억이 증가된 규모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100억 전체예산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주민수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의결 처리하며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은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거치며 최종 확정됐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동진 위원장은 "막중한 자리에 선임이 되어 무엇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지난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있었던 일을 거울삼아 집행부와 타협해서 무사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인에 부위원장은 "원칙을 기본으로 심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북구민의 살림을 꼼꼼히 살펴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높게 구민의 편에서 서서 위원장님을 도와 송구스러운 마음을 구민의 발전에 힘을 싣겠다"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구성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한동진 위원장, 유인에 부위원장을 비롯한 박문수 의원, 김연준 의원, 강선경 의원 등 총 5명의 예결특위 위원들은 16일~17일 2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한 후 18일 최종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구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강북구 예산은 4,100억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을 주민복지 향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과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예산이 배분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는 평가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3건 5억 583만 7천원을 감액하고 31건 5억 583만 7천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2014년 보다 435억 9800만원이 증가한 3,997억 700만원과 특별회계 2014년보



한동진 위원장

유인에 부위원장

다 1억 700만원이 증가한 103억 3,300만원 등 총 4,100억 4,100만원으로 세출 사업예산안을 결정했다.

신규로 구 공공근로특화사업 2억 781만 9천원, 강북구 인터넷 방송 문자활용 구성 홍보 1,200만원,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4,632만원 등을 편성했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1억원, 결식아동 우유급식지원 1,278만원 등을 일부감액하고,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3,129만 6천원, 무단투기 감사용 CCTV설치 1,050만원 등을 일부증액하여 편성했다.

또 부진한 다정다감 TV사업에 대해서 1년동안 내실있는 운영 후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전통주 전시회는 앞으로 1회만 지원하기로 했으며, 또한 구민회관 뒤편 체육시설 설치예산은 시급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아울러 동북4구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수시보고를 해주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광고물정비기금관리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기금으로 편성하기 바란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다.

한편 한동진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결위 심사를 통해 2015년 사업예산안 및 자금운용계획안이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만큼 낭비성, 전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고, 행정환경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초점을 두어 계수조정을 했으며,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축소하고 직접적인 민생관련 사업예산을 최대한 늘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